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구조: 자기 양가감, 자기 측면 간 조화도 및 부정 중심 구획화를 중심으로[†]

이 자 형

경기도교육지원청
Wee센터 임상심리사

황 성 훈[‡]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자아 이질적인 강박 사고가 자기 구조의 분리와 관련될 수 있다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했다. 강박 사고는 자아 이질성에 따라 자생성 사고와 반응성 사고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이 두 강박 사고 집단과 통제 집단의 자기 구조 지표를 비교하였다. 대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Padua 강박 질문지(PI-WSUR)와 침묵적 인지 질문지(ROI)를 실시하여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 27명,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 27명, 통제 집단 29명을 각각 선별했다. 자기 구조에 대한 자기 보고 척도로서 자기 양가감 척도(SAM)를 실시하였는데,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자기 양가성을 보였고, 두 강박 사고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자기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 측면 검사를 실시했는데, 측면들 간의 조화도에서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낮고, 두 강박 사고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자기 측면 검사에서 구조적 분리를 반영하는 지표는 구획화(ϕ)와 차별적 중요성(Differential Importance: DI)인데,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차별적 중요성은 낮았으나, 구획화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박 사고 집단은 부정적 측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높은 자기 양가감과 낮은 자기 측면 간 조화도가 시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긍정 대 부정 측면의 분리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자생성 강박 사고, 반응성 강박 사고, 자기 양가감, 구획화, 차별적 중요성

[†] 이 논문은 이자형(2014)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2017년 5월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성훈,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el: 02-2290-0362, E-mail: thinkgrey@hanmail.net

강박 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구성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과거에 강박 장애는 주로 강박 행동을 중심으로 확인, 세척, 정리정돈, 수집 등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Antony, Downie, & Swinson, 1998; Rasmussen & Tsuang, 1986). 그러나 강박 행동이 강박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또는 불편감을 줄이거나 두려운 사건 및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차적으로 수행됨이 밝혀지면서(APA, 1994), 강박 사고가 강박 행동보다 강박 장애의 더 근본적인 원인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점차 강박 사고의 발생에 주목하였다. Salkovskis(Salkovskis, 1985; Salkovskis, Shafran, Rachman, & Freeston, 1999)는 정상적 침투 사고와 병리적 강박 사고가 내용 면에서 유사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있을 법한 정상적 침투 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빛나간 평가와 이로 인한 중화 행동의 수행이 강박 증상의 발달 및 유지에 핵심이 된다. Clark(2004)는 원치 않는 침투적 인지 에 대한 정신적 통제를 오해석하는 것이 강박 사고의 지속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강박 사고는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자생성 강박 사고와 반응성 강박 사고로 구분하기도 한다(이한주, 1999; Lee & Kwon, 2003). 자생성 강박 사고(autogenous obsession)는 생각을 유발하는 단서나 자극이 뚜렷하지 않고, 사고 내용이 자아 이질적이며 비현실적인 속성이 강하다. 반면, 반응성 강박 사고(reactive obsession)는 구체적으로 탐지 가능한 외부 현실의 자극에서 생각이 유발되며, 비교적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고 내용의 자아 이질성이 약하다(이한주, 신민섭, 김중술, 권준수, 2002). 강박 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에도 차이를 보이는데(Lee & Kwon, 2003), 자생성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강박 사고가 떠오르는 것을 통제하려는 회피적 통제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반응성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직면적 통제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자생성 대(對) 반응성 강박 사고 모델이 강박 장애의 이해를 증진시켰지만, 강박 장애의 인지 행동 모델에서 중요시되는 자기(self)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서장원, 2010)이 제기되기도 한다. 침투 사고는 바로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achman, 1997). Ferrier와 Brewin(2005)은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불안한 생각보다 더 심각한 부정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경향이 있는데, 나쁜 생각이나 부도덕하고 미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강박 사고는 '두려워하는 자기(feared self)'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또한 자생성 강박 사고는 불안 외에도 죄책감(guilt)을 유발하는데(Lee & Kwon, 2003), 죄책감은 부정적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서 내면화된 가치 기준에 입각한 자기 평가에 뒤따라 나타난다(Buss, 2001; Leary, 2007; Lewis, Sullivan, Stanger, & Weiss, 1989; Tangney & Dearing, 2002). 따라서 강박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자의식 정서가 참조하는 대상, 즉 자기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강박 사고의 지속과 통제에 관련된 구성 개념인 취약성 수준(vulnerability level)은 지속적인

인지적 구조나 도식인데(Clark, 2004; Ingram & Price, 2001), 이는 양가적인 자기 평가, 부적응적인 상위 인지 신념, 높은 부정적 정서 특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Clark(2004)은 취약성의 수준에서 자아 이질성(ego-dystonicity; Freeston & Ladouceur, 1999; Rachman, 1998; Salkovskis, 1985)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침투적 인지 중에서 잘못된 평가를 이끄는 것은 자신의 가치 체계와 모순되거나, 이를 위협하는 자아 이질성이다. 취약성 수준이 높고 양가적인 자기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모순되며 원치 않는 침투적 인지는 중요하고도 위협적으로 해석되어, 강박적 반추의 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Clark, 2004). 따라서 병리적인 강박 사고를 보이는 사람은 정상적인 침투 사고를 보이는 사람보다 자아 이질적인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Rowa, Purdon, Summerfeldt와 Antony(2005)는 특정 유형의 강박 사고가 다른 사고보다 더 불쾌하게 경험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영역에 반하는 내용의 침투 사고일수록 더 불편하게 경험되며, 강박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도 더 높았다. Doron, Kyrios와 Moulding(2007)은 자기 개념의 특정 구조 중에서 도덕성에 대한 민감도가 강박 관련 신념 및 증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후속 연구에서도 매우 민감한 도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 침투 사고를 경험할 때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oron, Moulding, Kyrios, & Nedeljkovic, 2008). 위협의 과대 평가가 강박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듯이(Jones & Menzies, 1998;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1997),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욕이나 공격적이고 부도덕한 침투 사고에 의해 위협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증상의 차별화를 고려하는 데 있어 이한주의 모델이 유용할 것이다(Doron & Kyrios, 2005). 이를 하위 유형에 적용해보면, 반응성 강박 사고보다 더 자아 이질적인 자생성 강박 사고가 자기 영역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자기 개념이 강박 사고의 발생과 구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 개념에 반하는 낯선 생각을 경험하므로, 자기 구조가 양가적이거나 모순적이고 자기 개념의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이 살펴본 바로는,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구조를 탐색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강박 사고를 갖더라도 그 성질이 자생성인가 아니면 반응성인가에 따라서 자기 구조의 분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자기 특성 중 하나로 Guidano와 Liotti(1983)가 제시한 자기 양가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자기 양가감이 높을수록 침투적 인지에 대해 부적응적으로 대응한다(윤경희, 2008). 즉, 자기 양가감은 부정적인 회피(negative avoidance)를 부르고, 이는 정상적인 침투 사고를 병리적인 강박 사고로 고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 양가감은 자기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신념으로 정의한다(Guidano & Liotti, 1983). 자기 양가감이 높으면 자기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이분법적 용어로 지각되며, 자기 자신이 지나친 몰두의 대상이 된다(Bhar, 2004). 양가적이라는 표현과 일치하게 두 가지 대립적인 표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묘사와 평

가는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고 모순적으로 다가온다. 그로 인해 자기 개념의 구체화가 어렵고, 논박되기 쉬우며,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자기 양가감은 자기에 대한 갈등적 표상과 관련되며, 개인의 다면적이고 전반적인 자기 평가를 포함한다(Bhar, 2004; Bhar & Kyrios, 2000, 2007). 특정한 형태의 신념이라기보다는 통합과 분리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Guidano와 Liotti(1983)에 따르면, 강박 사고는 이상적 자기의 분리에 대하여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반영하고, 강박 행동을 비롯한 통제 전략들은 자기 양가감을 해소하고 이상적 자기를 회복하기 위해 동원되는 해결책들이다. 이상적 자기의 분리를 반영하므로, 강박 사고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양가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자아 이질성이 더 두드러지는 자생형은 반응형보다 자기 양가감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양가감은 자기 보고식 척도이므로, 다른 원천의 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자기 구조에 대한 측정치는 다면성 지표(self-concept pluralism; 자기 구획화 등)와 통합성 지표(self-concept unity; 자기 개념 명료성 등)로 나눌 수 있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이 두 지표 중 심리적 적응과 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통합성 지표로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통합성 지표 중 하나가 자기 개념 간에 상호 일관성이 있고 안정된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개념 명료성(Campbell, 1990)이다. 자기 개념 명료성은 자존감과는 정적 상관을, 신경증과 부정적 정서성, 우울, 불안 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Campbell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통합성의 지표로서 자기 측면 간의 조화도를 측정하였다(황성훈, 2007). 조화도 평정은 자기 개념의 내용이 내적으로 일관된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자기 개념 명료성과 유사한 면이 있다. 자기 양가감이 자기 개념에 대한 다면성 지표라면, 자기 측면 간 조화도 평정은 통합성 지표로서 보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기 측면들이 전체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보건대 조화로운 정도(자기 측면 간 조화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강박 사고 집단의 분리되고 양가적인 자기 구조가 자기 양가감 척도의 높은 점수뿐만 아니라, 자기 측면 간의 낮은 응집력(즉, 조화도 평정의 저하)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기의 구조를 측정하는 초기의 시도로는 Linville(1985, 1987)의 자기 복잡성 모델을 들 수 있다. Showers(Showers, 1992a, 1992b; Showers & Kling, 1996; Showers, Abramson, & Hogan, 1998)는 자기 복잡성 접근이 자기 측면의 정서가를 고려하지 않고 이질성에만 초점을 두었음을 비판하며, 자기 구획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자기 구조는 다면적인 자기 측면으로 구성되는데(예: 아버지로서의 나, 상담가로서의 나), 각 측면에는 좋거나 나쁜 속성이 속한다(예: 아버지로서 ‘엄하고’, ‘차갑다’; 상담가로서 ‘따뜻하고’, ‘허용적이다’). 자기 구조에서 구획화란 긍정 속성과 부정 속성이 자기 측면에 배타적으로 나뉘어서 담긴 정도를 의미한다. 위의 예는 아버지로서는 부정 속성만이, 상담가로서는 긍정 속성만이 있으므로, 긍정 측면과 부정 측면이 분리된 구획화 구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구획화된 구조는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통합 구조는 정서적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이 있는데, 긍정 측면과 부정 측면 중 어느 것을 중요시 여기는가이다. 긍정적 자기 측면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차별적 중요성(differential importance: DI; Pelham & Swann, 1989)이라고 한다. DI가 높다는 것은 긍정적 자기 측면을 중요하게 여겨서 동일시한다는 의미이고, DI가 낮다는 것은 반대로 부정적 자기 측면을 더 결정적이라 느껴서 동일시한다는 의미이다.

Pelham(1991)은 우울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여러 속성 중에서 부정적 속성보다 긍정적 속성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자기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차별적 중요성은 우울 증상 및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유득권, 이영호, 2013). 또한 김완일(2008)은 성격 특성 중 자기나 대상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dimension of evaluative meaning; Peabody, 1967)이 있는 사람들은 차별적 중요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긍정 자기 측면과의 동일시가 항우울 효과 및 스트레스 완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 속성만 따로 모아놓은 자기 측면이 있어도 그 부정 측면이 중요하지 않아서 자주 건드려지지 않으면(즉, DI가 높으면), 그 구획화는 기능적일 수 있다. 반면 부정 속성으로만 구성된 자기 측면이 있되 그것이 중요하고 빈번히 자극된다면(즉, DI가 낮으면), 높은 구획화는 역기능적이다(Showers, 1992a; Showers & Kevlyn, 1999). 전자를 긍정 중심의 구획화(positive compartmentalization), 후자를 부정 중심의 구획화(negative

compartmentalization)라고 하는데, 적응의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이다(황성훈, 2010a).

강박 사고가 높은 자기 양가감 및 자아 이질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박 사고를 보이는 사람들의 자기 구조는 긍정 대 부정 측면이 구획되어 있되, 부적응성으로 보건대 부정적 자기 측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하위 유형을 대입하면, 자아 이질성이 더 높은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에서 부정 중심의 구획화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강박 장애는 침투적 인지에 대한 잘못된 평가로 발생하는데, 그 평가 기저의 정서적 취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기 구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 이질적인 강박 사고의 발생이 바탕에 있는 분리된 자기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여,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강박 사고의 하위 유형에 따라 자아 이질성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시사되므로, 하위 유형에 따라 자기 양가감, 자기 측면 간의 응집력, 구획화와 차별적 중요성 등 자기 구조의 지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가설과 세부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분리된 자기 구조를 보일 것이다.

세부 가설 1. 강박 사고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 양가감이 높을 것이다.

세부 가설 2. 강박 사고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 측면 간의 조화도가 낮을 것이다.

세부 가설 3. 강박 사고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차별적 중요성은 낮고, 구체화는 높은 자기 구조(즉, 부정 중심의 구체화)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세부 가설 4.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은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에 비해 자기 양가감은 더 높고, 자기 측면 간의 조화도는 더 낮으며, 부정 중심의 구체화 정도는 더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심리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서산, 전주 소재의 일반 종합 대학 학생 228명과 서울 소재의 사이버 대학 학생 330명 등 총 55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에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무선 응답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외한 총 431명(일반 종합 대학 184명, 사이버 대학 247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9.50(표준편차 9.98)세였으며, 남자가 113명이고 여자가 318명이었다.

강박 사고 집단의 하위 유형은 Padua 강박 질

문지-워싱턴 주립 대학 개정판(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PI-WSUR; Burns, Keortge, Formea, & Sternberger, 1996)과 개정된 침투적 인지 질문지(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ROI; Purdon & Clark, 1993)로 구분하였다.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으로 Padua 강박 질문지의 상위 30%(77점 이상)와 침투적 인지 질문지의 자생성 문항 평균이 상위 30%(.73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27명을 선별하였다.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으로는 Padua 강박 질문지의 상위 30%(77점 이상)이 되, 침투적 인지 질문지의 반응성 문항 평균이 상위 30%(1.55 이상)를 충족하는 27명을 선별했다. 참고로, 침투적 인지 질문지의 자생성 문항과 반응성 문항 모두에서 상위 30%를 동시에 충족하는 집단(즉, 자생성 및 반응성 혼합 집단)도 선별을 고려했으나,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핀다는 연구 목적에 따라 최종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제 집단으로는 Padua 강박 질문지의 하위 30%(30점 이하)와 침투적 인지 질문지의 자생성 및 반응성 문항 평균이 모두 하위 30%(각각 .20과 .64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29명을 선별했다.

표 1.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과 통제 집단의 인구학적 변인, 선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자생 집단 ^A	반응 집단 ^B	통제 집단 ^C	<i>F</i> (2, 80)	사후 비교 (LSD [†])
연령(세)	34.74(10.66)	37.41(7.05)	22.83(8.13)	22.36***	A, B>C
교육연한(년)	14.22(2.08)	14.85(2.13)	14.24(1.15)	1.05	-
ROI_A	1.01(.32)	.37(.19)	.08(.05)	134.20***	A>B>C
ROI_R	1.11(.35)	2.10(.43)	.38(.20)	180.79***	B>A>C
PI-WSUR	88.89(8.72)	99.59(16.44)	10.55(7.26)	510.26***	B>A>C

주. ROI_A = 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의 autogenous obsessions; ROI_R = 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의 reactive obsessions; PI-WSUR = 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p*<.001.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강박 사고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연령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F(2, 80)=22.36, p<.001$, 교육연한은 차이가 없었다, $F(2, 80)=1.05, ns$. 유의한 연령차를 고려하여, 후속 분석에서는 연령을 공변인으로 통제했다.

침투적 인지 질문지의 자생성 문항과 반응성 문항 각각에서 기대한 방향으로 세 집단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F(2, 80)=134.20, p<.001, F(2, 80)=180.79, p<.001$. 이어서 Padua 강박 질문지에서 세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F(2, 80)=510.26, p<.001$,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이 가장 높았고,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이 그 다음이었으며, 통제 집단이 가장 낮았다. 반응형이 자생형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은 Padua 강박 질문지가 반응성 강박 사고를 반영하는 내용을 더 많이 담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Padua 강박 질문지는 자생형 문항(자신 및 타인 위해에 대한 강박 사고)이 16개인 반면에 반응형 문항(오염 및 청결, 확인, 옷 입기 강박 행동)은 23개이다.

측정 도구

Padua 강박 질문지-워싱턴 주립 대학 개정판(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PI-WSUR). 이는 강박 사고나 충동, 강박 행동 등의 강박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Sanavio(1988)가 개발한 60문항의 Padua 강박 질문지를 Burns 등(1996)이 수정한 척도이다. 총 39개 문항이 5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며, 위해에 대한 강박 사고, 위해에 대한 충동, 오염 강박 사고, 청결 강박 행동, 옷 입기 강박 행동 등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순호

(2004)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설순호(2004)의 연구에서 .97이었으며, 서장원(2010)의 연구에서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8이었다.

개정된 침투적 인지 질문지(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ROII).

Purdon과 Clark(1993)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강박적인 생각, 심상, 충동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서 part I과 II로 나뉜다. part I은 다양한 내용의 강박 사고를 담은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된다. 이는 관련된 자극 없이 침투하며 대부분의 경우 비현실적, 비합리적이고 자아 이질적인 내용으로 수용되는 자생성 강박 사고(예: '권위적 인물이 발가벗고 있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등)와 비교적 관련된 상황 자극에 대한 해석이나 반응으로 일어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용되는 반응성 강박 사고(예: '공공장소의 문손잡이 등을 만지면 오염되고 더러워질 것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등)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박 사고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이한주(1999)가 수정 및 번안한 part I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52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다.

자기 양가감 척도(Self-Ambivalence Measure: SAM).

Bhar(2004)는 자기 불확실성, 자기 이분법, 그리고 자기 몰두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 양가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도덕성(morality), 사랑스러움(lovability), 그리고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self-worth) 등의 자기 평가에서 모순 및 불

일치(예: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곤 한다’ 등)나 이에 지속적으로 몰두(예: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늘 걱정이다’ 등)하는 것을 나타내는 총 19개 문항이 5점 척도 상에서 평정된다. Bhar와 Kyrios(2007)가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도덕성(예: ‘내가 도덕적인 사람인지 의문이다’ 등)과 사랑스러움(예: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의심스럽다’ 등)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윤경희(2008)가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윤경희(2008)의 연구에서 .93이었다.

자기 측면 검사. 이는 Showers(1992b)가 자기 구획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 분류 과제를 황성훈(2007)이 지필형으로 변용한 것이며,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참여자는 자신을 구성하는 측면(예: ‘공부할 때의 나’, ‘친구로서의 나’ 등)을 원하는 수만큼 제시하고, 각 측면을 40개의 속성 단어를 통해 묘사한다. 속성 단어는 연구자들이 임상심리 전문가와 함께 강박 관련 긍정(예: ‘통제력 있다’ 등)과 부정(예: ‘무질서하다’ 등) 단어를 각각 20개로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자신이 묘사한 각 측면에 이름을 붙이고, 자기 측면들 간의 조화도를 평정했다. 단일 문항으로 ‘나의 측면들이 전체적인 나의 눈에서 볼 때 서로 조화로운 정도(조화도)’를 ‘매우 그러하다(+3)’에서 ‘매우 그러하지 않다(-3)’에 걸친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3단계에서는 자신이 묘사한 각 측면에 대해 중

요성, 긍정성, 부정성을 평정한다. 이 평정은 차별적 중요성(Differential Importance: DI; Pelham & Swann, 1989)의 산출에 쓰인다. DI가 높다는 것은 긍정적 자기 측면을 중요시한다(즉, 부정 자기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고, DI가 낮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반대로 부정 측면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DI는 각 측면의 중요성을 한 변인으로, 각 측면의 긍정성에서 부정성 평정을 뺀 값을 다른 변인으로 하여 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며,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 DI의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긍정 속성이 부정 속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나타낸다.

구획화 지표(ϕ 계수)는 긍정 속성과 부정 속성이 자기 측면에서 상호 배타적으로 별도의 범주에 분류되는 정도를 반영한다. ϕ 계수를 구하기 위해 자기 측면을 한 차원으로, 속성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른 차원으로 하여 χ^2 을 먼저 산출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추가 계산을 거친다:

$$\phi = \sqrt{\chi^2/N}$$

N 은 분류에 동원된 속성의 수임.

ϕ 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분류한 자기 측면이 긍정 대 부정 차원과 연합되어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 ϕ 가 1에 가까워질수록 범주별로 긍정 대 부정 속성이 분리되어 분포하고(즉, 구획화되어 있고), 0에 가까울수록 자기 측면이 긍정 대 부정과 무관한(즉, 통합된) 분포를 보인다.

절차

참여자들은 강좌 이수 사항의 하나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Padua 강박 질문지-워싱턴 주립 대학 개정판(PI-WSUR)과 개정된 침투적 인지 질문지(ROI)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답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으로 선별되었다.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온라인에서 자기 측면 검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연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자기 측면 검사를 완료하였다.

자료 분석

먼저 자기 양가감 척도가 강박 사고 집단(자생성/반응성/통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하되, 연령을 공변인으로 통제했다. 이어서, 자기 보고 척도에 대한 보완 측정치로서 자기 측면 검사의 2단계에서 이뤄진 측면 간 조화도 평정을 종속 측정치로, 강박 사고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강박 사고 집단에서 역기능적인 부정 중심 구획화의 편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쌍을 이루는 자기 구조 지표인 구획화와 차별적 중요성을 참여자 내 변인으로, 강박 사고 집단을 참여자 간 변인으로, 그리고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는 2(구획화/차별적 중요성)×3(자생성/반응성/통제 집단)의 혼합설계에 따른 다변량 공분산 분석을 했다. 이때 참여자 내 변인인 구획화와 차별적 중요성은 단위가 다른 점수이므로,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50과 .25; .40과 .55)를 사용하여 평균 0, 표준편차 1인 점수로 표준화하였다.

결 과

자기 양가감과 자기 측면 간 조화

강박 사고가 분리된 자기에 근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자기 양가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세 개의 강박 사고 집단에 따른 차이는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의하였다, $F(3, 79)=11.86, p < .001$. Fisher의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사후 비교에서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 양

표 2.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과 통제 집단의 자기 양가감과 측면 간 조화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자생 집단 ^A	반응 집단 ^B	통제 집단 ^C	$F(3, 79)$	사후 비교 (LSD [†])
자기 양가감	34.41(14.13)	35.30(12.70)	20.17(11.98)	11.86***	A, B>C
도덕성	8.33(4.61)	8.52(4.09)	5.10(4.16)	4.65*	A, B>C
사랑스러움	26.07(9.94)	26.78(9.30)	15.07(8.31)	14.90***	A, B>C
조화도	.00(1.47)	.00(1.52)	.76(1.09)	7.45**	A, B<C

[†]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 $p < .05$. ** $p < .01$. *** $p < .001$.

가감이 더 높았으나, 두 강박 사고 집단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세부 가설 1에서 제기한 것처럼, 자기 구조에 내재한 자아 이질성의 자기 보고에서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았으나,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로 자생형이 반응형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세부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두 하위 요인인 도덕적 측면의 양가감과 사랑스러움 측면의 양가감도 모두 비슷한 패턴의 차이를 보였다.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자신의 도덕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감이 높았고, $F(3, 79)=4.65, p<.05$, 자신의 사랑스러움에 대해 모순을 느끼면서 더욱 몰두되어 있었다, $F(3, 79)=14.90, p<.001$. 그러나 두 요인 모두에서 강박 사고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 보고 척도인 자기 양가감의 결과를 교차

확인하기 위해, 자기 측면 검사에서 자기 측면들 간의 조화도 평정을 분석하였다. 자기 측면 간 조화도는 강박 사고 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 79)=7.45, p<.01$.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살피기 위해 최소유의차 사후 비교를 하였는데,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강박 사고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 측면 간 조화도가 더 낮았지만, 두 강박 사고 집단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 강박 사고 집단이 자기 양가감에 더해서 자기 구조의 부조화가 높으리라는 예측은 지지되었으나,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에서 그 부조화가 더 현저하리라는 하위 유형별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자기 양가감 척도의 결과가 자기 측면 검사 상의 조화도 평정으로 교차 확인되었다. 자기의 내적 이질성과 분리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보고가 수렴하는 양상이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세 집단을 모두 합친

표 3. 자기 양가감과 자기 측면 간 조화도의 상관

	전체 집단	자생 집단 및 반응 집단	통제 집단
<i>r</i>	-.33**	-.27*	-.14
<i>N</i>	83	54	29

* $p<.05$. ** $p<.01$.

표 4. 자기 구조 지표(구획화/차별적 중요성)와 강박 사고 집단(자생성/반응성/통제)의 분산분석

	<i>SS</i>	<i>df</i>	<i>MS</i>	<i>F</i>	<i>p</i>
집단 간					
자기 구조 지표	13.76	1	13.76	18.39	.000
자기 구조 지표 × 강박 사고 집단	11.36	2	5.68	7.59	.001
오차	49.36	66	.75	-	-
집단 내					
강박 사고 집단	2.36	2	1.18	1.01	.37
오차	77.25	66	1.17	-	-

표집(N=83)에서 자기 양가감과 조화도 평정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는데, 둘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했다, $r = -.33, p < .01$. 자기 양가감이 높을수록, 자기 측면 간의 조화도는 낮아졌다. 집단별로 상관관계의 정도가 달라서, 자기 양가감과 측면 간 조화도의 밀접한 관련성은 자생형 및 반응형을 합친 강박 사고 집단(N=54)에서는 유의했으나, $r = -.27, p < .05$, 통제 집단(N=29)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r = -.14, ns$.

자기 구획화와 차별적 중요성

구획화의 역기능성은 차별적 중요성(DI)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지표를 한 쌍으로 고려해서 분석하였다. 2(구획화/차별적 중요성)×3(자생성/반응성/통제 집단)의 혼합설계 분산분석(mixed design ANOVA)을 실시했다. 차별적 중요성은 상관계수로서 한 변인이 동일한 값으로 반복되면 계산 불가능이 되어 결측치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 24명,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 23명, 그리고 통제 집단 23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구조 지표의 주효과가 유의했으며, $F(1, 66) = 18.39, p < .001$, 구조 지표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66) = 7.59, p < .01$. 반면에 강박 사고 집단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66) = 1.01, ns$.

상위의 효과인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표 5와 같이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를 분석하였다.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에서 자기 구조 지표의 단순 주효과는 유의해서, $F(1, 66) = 10.92, p < .01$,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구획화가 차별적 중요성에 비해 높았다.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에서도 자기 구조 지표의 단순 주효과는 유의해서, $F(1, 66) = 6.69, p < .05$, 구획화가 차별적 중요성에 비해 더 높았다. 통제 집단에서 자기 구조 지표의 단순 주효과는 유의하되, $F(1, 66) = 6.95, p < .05$, 그 차이의 방향은 반대여서 차별적 중요성이 구획화보다 더욱 높았다. 즉, 강박 사고 집단과 자기 구조 지표의 상호작용은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에서 차별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구획화는 높은 구조를 보이고, 통제 집단은 차별적 중요성이 높고 구획화는 낮은 구조를 띄는 것에 기인했다.

표 5.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자기 구조 지표의 단순 주효과

	Value	F	df	Error df	p
자생 집단	.14	10.92	1	66	.002
반응 집단	.09	6.69	1	66	.012
통제 집단	.10	6.95	1	66	.010

표 6. 자기 구조 지표에서 강박 사고 집단의 단순 주효과

	SS	df	MS	F	p
구획화	1.98	2	.99	1.11	.335
차별적 중요성	11.74	2	5.87	5.70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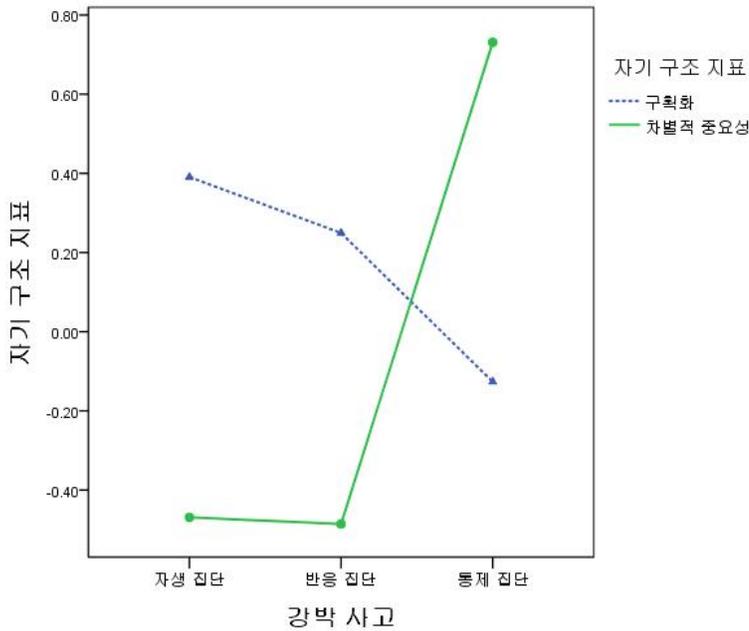


그림 1. 강박 사고 집단과 자기 구조 지표의 상호작용

이번에는 단순 주효과 분석의 축을 달리해서,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구조 지표를 중심으로 강박 사고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했다. 구획화 지표에서 강박 사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66)=1.11, ns$. 반면, 차별적 중요성에서 강박 사고 집단의 단순 주효과는 유의했다, $F(2, 66)=5.70, p<.01$. Fisher의 최소유의차(LSD) 검정에 따라 비교했는데, 차별적 중요성에서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은 서로 차이가 없었으나, 통제 집단에 비해서 더 낮았다. 강박 사고 집단의 자기 구조를 정상 통제 집단과 구분 짓는 것은 구획화가 아니라 차별적 중요성이었다.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 측면이 자신을 정의하는 본질적인 면이라고 동일시하되, 강박 사고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강박 사고 집단과 구조 지표의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 분석에서 강박 사고 집단은 부정 중심의 구획화 구조를, 통제 집단은 긍정 중심의 통합 구조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른 분석에서는 강박 사고 집단이 구획화에서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고, 차별적 중요성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 사고 집단은 부정적인 측면이 중요하나, 긍정 대 부정 속성이 상호 배타적인 측면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다. 강박 사고 집단의 자기 구조가 부정 중심이기는 하되, 구획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부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부정 중심의 구획화가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에서 더 뚜렷하리라는 가정도 지지되지 않았다.

표 7. 강박 사고 및 증상과 자기 구조 지표(자기 양기감, 측면 간 조화도, 구획화, 차별적 중요성)의 상관

	전체 집단(N=83)							자생 집단 및 반응 집단(N=54)						통계 집단(N=29)
	1	2	3	4	5	6	7	1	2	3	4	5	6	
1. ROI_A	-													
2. ROI_R	.19	-						-.64**						
3. PI_WSUR	.58**	.80**	-					-.28*	.45**					.26
4. SAM	.39**	.44**	.50**	-				.12	.15	.07		-.14	.04	
5. 측면 간 조화도	-.15	-.21	-.22*	-.33**	-			.04	-.02	.13	-.27*		-.33	
6. 구획화	.05	.04	.08	.06	-.15	-		.02	-.02	.03	.03	-.07		
7. 차별적 중요성	-.18	-.17	-.14	-.29*	.26*	.12	-	-.11	-.08	-.03	-.31*	.31*	.12	

주. ROI_A = 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의 autogenous obsessions; ROI_R = 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의 reactive obsessions; PI-WSUR = 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SAM = Self-Ambivalence Measure.

* $p < .05$. ** $p < .01$. *** $p < .001$.

추가 분석: 강박 사고와 자기 구조 측정치의 상관

탐색적 목적을 위해서 강박 사고 및 강박 증상의 측정치와 자기 양가감, 자기 측면 간 조화도, 구획화, 차별적 중요성 등 주요 종속 측정치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세 집단을 모두 합친 표집($N=83$)에서 자기 양가감은 자생성 강박 사고, 반응성 강박 사고, 강박 증상 각각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39, p<.01$, $r=.44, p<.01$, $r=.50, p<.01$. 반면에 구획화는 강박 사고 및 강박 증상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서, 주요 분석에서 강박 사고 집단에 따른 구획화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일치한다. 구조 지표 중 자기 측면 간 조화도만이 Padua 강박 질문지로 측정된 강박 증상과 유의한 역상관을 보여서, $r=-.22, p<.05$, 청결 및 확인과 같은 강박 증상이 높을수록 자신을 이루는 다측면 간의 응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시사된다.

자기 구조 측정치 상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 양가감이 높을수록 측면 간 조화도는 저하되는데, $r=-.33, p<.01$, 이는 자기 양가감에 대한 앞선 분석에서 제시된 바 있다. 차별적 중요성이 높을수록 측면 간 조화도는 높아지되, $r=.26, p<.05$, 자기 양가감은 낮아지는 양상이었다, $r=-.29, p<.05$. 즉, 긍정적 측면이 중요하며 자신을 정의한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내적인 다측면 간의 응집력이 높고, 자기 평가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어서 자생형 및 반응형을 합친 강박 사고 집단($N=54$)의 상관을 살펴보면, 먼저 자생성 강박 사고와 반응성 강박 사고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서, $r=-.64, p<.01$, 하위 유형 구분을 위한 집

단 선별이 의도대로 이뤄졌음을 확인해준다. 또한 강박 사고 집단에서 자기 양가감이 높을수록 자기 측면 간 조화도가 떨어지는 연계성을 전체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였다, $r=-.27, p<.05$. 그러나 자기 구조의 주요 측정치인 구획화는 강박 사고나 강박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r=.02, ns$, $r=-.02, ns$, $r=.03, ns$, 이 역시 전체 집단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차별적 중요성은 강박 사고 및 증상과 무관하나, $r=-.11, ns$, $r=-.08, ns$, $r=-.03, ns$, 자기 측면 간 조화도 및 자기 양가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31, p<.05$, $r=-.31, p<.05$.

논 의

강박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표면 증상인 강박 사고에 대한 연구는 활발했으나, 그 기저에 해당하는 자기 개념과 자기 구조에 대한 관심은 충분하지 못했다. 연구자들의 문헌 개관으로는 본 연구가 강박 사고 집단의 취약성 기반인 자기 구조를 탐구하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로 보인다. 강박 사고가 자기 구조상의 이질성, 모순, 분리 등과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가정에서 강박 사고를 갖는 사람들의 자기 구조를 자기 양가감, 자기 측면 간 조화도 지각, 그리고 부정 중심의 구획화 구조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이에 더해, 강박 사고를 자생성과 반응성으로 분류할 때, 전자가 자아 이질성과 자기로부터의 분리를 더 반영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위 유형에 따른 비교도 포함시켰다. 자기 구조에 접근하기 위해 기본적인 자기 보고 척도(자기 양가감 척도) 이외에도 자신을 구성하는 측면을 분류하고 기술하게 하는 수행 기반의 자

기 측면 검사에서 얻는 지표인 자기 측면 간 조화도 지각, 구획화, 차별적 중요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로 본 연구가 얻는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박 사고 집단은 정상 통제 집단보다 자기 양가감이 높다는 가정은 지지되었다. 강박 사고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혼란스러운 자기 가치에 지속적으로 몰두함을 알 수 있다. 높은 자기 양가감은 강박 사고가 유지되는 취약성 수준으로 작용해서, 이상적인 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박 행동과 통제 전략이라는 대처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높은 자기 양가감으로 보건의대 강박 사고 집단은 자신을 모호하고 불확실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몰두함으로써 침투적 인지에 대한 취약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자기 양가감이 강박 장애에서 중요하다는 선행 이론(Guidano & Liotti, 1983) 및 경험적 연구(Bhar, 2004; Bhar & Kyrios, 2007)와 일치한다. 윤경희(2008)의 연구에서도 자기 양가감은 강박 경향의 침투적 인지 및 통제 방략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최근 이유라(2018)의 연구에서는 침투 사고가 참여자 개인의 특성에 맞춰지거나 자기 참조적일수록 강박 증상의 유도가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는 강박 사고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모순적이거나 갈등되는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정상적인 침투적 사고라도 그 내용이 자기 개념이나 가치와 괴리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병리적인 강박 사고로 악화된다는 주장(Purdon & Clark, 1993, 1999)과 일관된다.

둘째, 자기 양가감에 대한 수렴적 측정치로서 자기 측면들이 전체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얼마나

조화로운지를 평가하였는데, 강박 사고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조화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강박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가감이 높은 것과 일치하게, 자신의 측면들이 전체를 향해 조화롭게 응집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셋째, 강박 사고가 있는 집단은 차별적 중요성이 낮고 구획화는 높은 자기 구조를 보이고, 통제 집단은 차별적 중요성이 높고 구획화는 낮은 자기 구조를 보였다. 이는 강박 사고 집단이 부정 중심의 구획화 구조를 띄고, 통제 집단은 긍정 중심의 통합 구조를 지닌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으나, 실제로 강박 사고 집단은 구획화에서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었고, 차별적 중요성에서 더 낮았다.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예측과 다르게 긍정 대 부정 속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획화된 자기 구조의 이상적인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측면이 강박 사고의 침투와 관련 될 것이라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강박 사고 집단은 자기 구조에서 부정 측면이 중심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정적 측면을 자신의 전체와 동일시하는 셈이므로,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 부정적 자기 측면이 더 빈번하게 건드려질 수 있다. 구획화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자극된 부정적 자기 속성이 다른 측면으로 확산되거나 다른 긍정적 속성에 의해 상쇄되는 정도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적 중요성의 차이는 부정적 자기 속성의 촉발 자체가 강박 사고 집단이 더 빈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일치하게, 강박 사고 집단은 부정적 자기 추론이 높되, 특히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이 더 그러해서(서장원, 2010; 이유라, 2018),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개념이 부정적 편

중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을 종합하면, 강박 사고를 보이는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 표상 간의 갈등과 양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와 일관되게, 자기 측면들의 조화와 어울림이 부족하다고 지각하고 있어서, 상충과 모순이 존재하는 분리된 자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기 구조의 주관적인 분리감이 수행 기반의 과제인 자기 측면 검사에서 구획화 지표의 차이로 교차 검증되지는 않았다. 대신 강박 사고 집단은 자기 구조에서 단점이나 약점(즉, 부정적 측면)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것이 자신의 전면에 부각되어 있어서, 강박 사고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 자기 측면이 더 자주 활성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자기 양가감과 자기 측면 간 조화도, 그리고 부정 중심의 구획화 정도는 강박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자아 이질성이 더 강한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이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자기 양가감과 낮은 자기 측면 간의 조화도로 보건대 강박 사고를 보이는 사람들은 갈등적이고 분리된 자기 구조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 구조에 접근하기 위해 자기 보고 척도의 결과를 넘어서서 수행 기반의 과제인 자기 측면 검사를 사용하여 구조 지표를 측정하였다. 강박 사고 집단의 인지적 특성을 다루는 것(설순호, 2004; 이미소, 2014; 이한주, 1999)에 머물지 않고 그 바탕이 되는 자기(self)에 초점을 맞추되, 자기 추론의 내용(서장원, 2010; 이유라, 2018)에 그치지 않고 구조에 접근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높은 자기 양가감이 높은 구획화 지표에 의해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강박 사고 집단은 부정 중심의 구조라는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두번째로 강박 사고가 통합성이 낮은 자기 구조와 관련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강박 사고의 치료에서 자기 구조의 통합을 돕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임상적 시사점을 제기한다. 정상적 침투 사고에 뒤따르는 자동적 사고를 작업해서 침투 사고에 대한 과잉 책임감을 변화시키는 인지적 접근(Salkovskis, 1985)이 표층의 작업이라면, 이에 더해 자신의 이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을, 강점 측면뿐만 아니라 약점 측면을, 그리고 나의 좋은 측면뿐만 아니라 나쁜 측면을 소유하고 아우르는 심층의 작업도 요구된다. 바람직하지 않고 어두우며, 약한 자신의 측면을 인식한다는 것이 곧 그것을 바람직하고 밝고 강한 측면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인지적 탈중심화를 추구하며 사적 경험에 대한 마음챙김적 태도를 취하는 접근을 적용한다면(Hayes, Strosahl, & Wilson, 1999; Segal, Williams, & Teasdale, 2002; Wells & Matthews, 1994),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재구성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양가감은 감소하고 자기 측면 간의 조화도는 향상될 수 있다.

이론적, 임상적 함의에도 본 연구가 남겨놓은 한계가 있어서, 이는 향후 연구에 의해 아우러지고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자기 양가감, 자기 측면 간 조화도, 그리고 차별적 중요성에서 강박 사고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있었으나, 하위 집단인 자생성 강박 사고 집단과 반응성 강박 사고 집단의 차이는 발견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생형이 반응형에 비해 자아 이질성과 구조적 분리가 더 강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능한 원인 중 하나는 본 연구에서 두 하위 집단을 선별하는 절차와 관련될 수 있다. 하위 집단의 선별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으로 자생성 강박 사고와 반응성 강박 사고가 모두 높은 집단이 25명에 이르러서(즉, 혼재하는 양상이어서), 이 둘을 가르는 것이 인위적이었다. 더 현실적인 분류는 자생성과 반응성 사고가 모두 높은 집단, 전자만 높은 집단, 후자만 높은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일 수 있다. 이론적 상상을 연장해 보면, 자기 구조의 차이는 자생성 대(對) 반응성 사고 집단의 비교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집단 대(對) 한 가지만 높은 집단의 비교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강박 사고에 따른 하위 유형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강박 장애 환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므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Wilhelm & Steketee, 2006). 또한 강박 증상은 표면적인 차이보다 배후의 동기적 차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강수현, 2017). 이를 고려한다면, 자기 측면 검사를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시하는 대규모 연구를 기획할 수 있다. 전산화된 자기 측면 검사에서 지시문이 잘 이해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온라인 설문 시스템의 일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연속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하위 집단 간 차이 분석 대신에 회귀 기반의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강박 사고의 하위 유형 분류의 기술적인 문제(예: 선별 도구의 몇 점

을 기준으로 하위 집단을 구분하는가 하는 분류의 임의성 문제, 두 하위 유형의 상호작용 가능성 문제 등)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론에 더해, 본 연구에서 하위 유형 구분에 쓰인 침투적 인지 질문지의 타당도에 대한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침투적 인지 질문지는 반응성 문항의 수가 자생성 문항의 30% 정도로 적다. 또한 비도덕적, 공격적, 성적인 내용, 오염이나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을 뿐 신성 모독이나 순서에 대한 집착, 신체에 관련된 침투적 인지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침투적 인지 질문지는 자생성 강박 사고를 충분히 타당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침투적 인지 질문지를 사용하여 강박 사고를 분류한 연구에서 자생성 집단과 반응성 집단이 대처 방략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이미소, 2014), 부정적인 자기 추론에서도 역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유라, 2018). 따라서 강박 사고의 하위 유형은 가정만큼 타당한 분류가 아닐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며, 반복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강박 사고 집단의 자기 구조가 긍정 속성과 부정 속성이 상호 배타적으로 다른 측면에 담긴다는 구획화 가설이 지지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한계이다. 강박 사고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구획화에 있지 않고, 차별적 중요성에서 있었다. 구획화와 무관하게, 강박 사고 집단은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더 중요시하였고, 반면에 통제 집단은 긍정적 측면을 더 중요시하였다. 자기 양가감과 자기 측면 간의 조화도는 강박 사고 집단의 분리된 자기 구조를 시사하나, 구획화 지표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자기 구조에서

는 부정 대 긍정 속성이 섞여서 자기 측면을 구성하되, 그 중 부정적 자기 측면이 구조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자기 구조상의 낮은 통합이 구획화를 통해 교차 입증되지 못한 원인으로 Showers(1992b)의 카드 분류 과제를 변용한 자기 측면 검사의 타당도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Showers(1992b)는 참여자가 직접 카드를 분류하는 개인용 과제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필용 검사로 변용한 것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자기 측면 검사는 카드 분류 과제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고(황성훈, 2007), 이러한 방식의 변용이 성공리에 시도된 바 있으며(김윤희, 2001; Morgan & Janoff-Bulman, 1994), 비교적 다양한 병리를 대상으로 타당하게 적용된 바 있지만(황성훈, 2010a, 2010b; 황성훈, 이훈진, 2011), 자기 측면 검사의 타당도를 더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카드 분류 과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측면 검사를 활용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가 누적되고 있어서(강인, 최혜경, 1998; 권선영, 2006; 김완일, 1997; 박성현, 2002; 양현지, 2012; 이경미, 2010; 이상순, 2012; 이정은, 2005), 최소한의 타당도와 유용성을 지닌 평가 방법으로 생각된다.

구획화의 차이가 입증되지 않은 다른 원인은 본 연구의 표집이 대학생 중 강박 사고를 보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증상의 심각도가 높으면 그만큼 강박 사고와 자신의 불일치감이 클 것이므로, 자기 구조의 구획화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강박 장애의 임상 표집에서 강박 사고가 부정 중심의 구획화 구조와 연계된다는 가설을 다시 검증해 볼 수 있다.

표집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것은 본 연구가 일반 대학생 및 사이버 대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한 점이다. 이질적인 표집을 포함했으므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대학생들은 20대의 전업 학생이고, 사이버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30대 이상의 성인으로서 대학 학업을 병행하는 집단(이은주, 2014)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질적인 구분이 있다. 두 집단의 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는 공변량으로 통제되었지만, 잠재적 이질성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단을 분리해서 별개의 연구를 수행하고 둘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한 연구 전략일 수 있다.

셋째, 자기 구조에서 양가감이 높고 측면 간 조화도와 차별적 중요성이 낮은 것은 강박 사고 집단의 특유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상 반영 과제를 실시한 연구에서 현실적인 자기상과 이상적인 자기상 사이의 양가감이 크게 나타났다(김병훈, 2016). 자기 측면 검사에서 측면 간 조화도를 측정할 병리로는 내현형 자기에 성격 성향 집단(황성훈, 2010a), 경계선 성격 성향 집단(황성훈, 이훈진, 2011), 해리 경향이 있는 집단(황성훈, 2010b) 등이 있는데, 이 병리 집단 각각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기 측면 간 조화도가 낮았다. 또한 내현형 자기에 성격 성향 집단은 외현형 자기에 성격 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해 차별적 중요성이 낮았고(황성훈, 2010a), 양극성 성향 집단도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자신의 긍정적 측면이 덜 중요하다는 인식(즉, 낮은 차별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윤미영, 2017). 따라서 자기 측면 간의 높은 부조화와 낮은 차별적 중요성은 범진단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나 범불안 장애 성향 집단과 같은 다른 병리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원치 않으며 침투적인 강박 사고의 발생이 자기 구조에서의 모순, 갈등, 대립, 분리 등 부조화와 균열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임상적 표집을 대상으로 하여 강박 사고의 신뢰할 수 있는 하위 구분을 적용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개량된 자기 측면 검사를 채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자아 이질적인 강박 사고로 나타나는 인지적 영역의 분리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구조의 분리로 회귀된다는 좀 더 강건한 가설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현 (2017). 동기적 차원의 강박증상 유형에 따른 자기 양가감과 사고-실재 융합의 차이: 비임상 집단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인, 최혜경 (1998). 여성의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6(4), 95-107.
- 권선영 (2006). 다중역할 수행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 복잡성(Self-Complexity)의 완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병훈 (2016). 조현병 환자에서 자기상에 대한 양가감정의 특성, 대한조현병학회지, 19(1), 5-9.
- 김완일 (1997). 자기평가와 자기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완일 (2008). 자기-태도 차원구조와 차별적 중요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1), 31-45.
- 김윤희 (2001).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자기개념과 자기복잡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현 (2002). 자기-태도의 분화수준과 정서의 극대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장원 (2010). 강박사고와 부정적 자기추론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설순호 (2004). 걱정과 강박사고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통제방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현지 (2012). 자기복잡성과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 삶만족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득권, 이영호 (2013). 반추적 반응양식과 자기조직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259-276.
- 윤경희 (2008). 자기 양가감, 사고-실재 융합과 강박 경향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미영 (2017). 양극성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미 (2010). 자기복잡성과 자기구획화가 우울, 스트레스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소 (2014).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사고에 대한 대처방략의 차별적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순 (2012). 신경증적 경향성, 투사 및 지각된 부부갈등 간 관계: 자기복잡성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유라 (2018).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가 부정적 자기추론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 (2014).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일과 학업의 조화를 위한 적응과정. 한국과학예술포럼, 18, 495-507.
- 이정은 (2005). 자기복잡성과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한주 (1999).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에 대한 평가와 통제방략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한주, 신민섭, 김중술, 권준수 (2002).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 임상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57-74.
- 황성훈 (2007). 정신병리에서 이분법적 사고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성훈 (2010a).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07-531.
- 황성훈 (2010b). 해리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자기 구조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821-838.
- 황성훈, 이훈진 (2011).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의 이분법적 사고와 자기 구조 특성. *인지행동치료*, 11(2), 75-9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tony, M. M., Downie, F., & Swinson, R. P. (1998). Diagnostic issues and epidemiology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R. P. Swinson, M. M. Antony, S. Rachman, & M. Richter (Eds.),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3-32). New York: Guilford Press.
- Bhar, S. (2004). *Ambivalent Sense of self an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Bhar, S., & Kyrios, M. (2000). Ambivalent self-esteem as meta-vulnerabilit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elf-concep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from the new millennium* (pp. 143-156). Sydney, Australia: Self Research Center.
- Bhar, S., & Kyrios, M. (2007). An investigation of self-ambivalenc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8), 1845-1857.
- Burns, G. L., Keortge, S. G., Formea, G. M., & Sternberger, L. G. (1996). Revision of the Padua Inventory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symptoms: Distinctions between worry, obsessions, and compul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2), 163-173.
- Buss, A. H. (2001). *Psychological dimensions of the self*. Thousand Oaks, CA: Sage.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 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lark, D. M. (2004).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OCD*. New York, NJ: Guilford Press.
- Doron, G., & Kyrios, M. (2005).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 review of possible specific internal representations within a broader cognitive theor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4), 415-432.
- Doron, G., Kyrios, M., & Moulding R. (2007). Sensitive domains of self-concept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CD): Further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model of OCD.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3), 433-444.
- Doron, G., Moulding, R., Kyrios, M., & Nedeljkovic, M. (2008). Sensitivity of self-beliefs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 2710), 874-884.
- Ferrier, S., & Brewin, C. (2005). Feared identity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10), 1363-1374.
-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9).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for obsessive thought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6*(4), 362-383.
- Guidano, V. F., & Liotti, G. (1983). *Cognitive processes and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J: Guilford Press.
- Hayes, S. C., Strosahl, K. D., & Wilson K. 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 experiential approach to behavior change*. New York, NJ: Guilford Press.
- Ingram, R. E., & Price, J. M. (2001). The role of vulnerability in understanding psychopathology. In R. E. Ingram & J. M. Price (Eds.),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Risk across the lifespan* (pp. 3-19). New York, NJ: Guilford Press.
- Jones, M. K., & Menzies, R. G. (1998). Danger ideation reduction therapy (DIRT) for obsessive-compulsive washers: A controlled tria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10), 959-970.
- Leary, M. R. (2007). Motivational and emotional aspects of the self.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17-344.
- Lee H. J., & Kwon, S. M. (2003). Two different types of obsession: autogenous obsessions and reactive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1), 11-29.
- Lewis, M., Sullivan, M. W., Stanger, C., & Weiss, M. (1989). Self development and self-conscious emotions. *Child Development, 60*(1), 146-156.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1),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663-676.
- Morgan, H. J., & Janoff-Bulman, R. (1994). Positive and negative self-complexity: Pattern of adjustment following traumatic versus non-traumatic life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1), 63-85.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1997). Cognitive assess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7), 667-681.
- Peabody, D. (1967). Trait inferences: Evaluative and descriptive aspects. *Journal of Psychologist and Social Psychology, 7*(4), 1-18.
- Pelham, B. W. (1991). On the confidence and consequence: the certainty and importance of self-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18-530.
- Pelham, B. W., & Swann, W. B.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72-680.
- Purdon, C. L., & Clark, D. A. (1993). Obsessive intrusive thoughts in nonclinical subjects. part I: Content and relation with depressive, anxious and obsessional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8), 713-720.
- Purdon, C. L., & Clark, D. A. (1999). Metacognition and obsessio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6*(2), 102-110.
- Rachman, S. (1997).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9), 793-802.
- Rachman, S. (1998).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Elabor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385-401.
- Rasmussen, S. A., & Tsuang, M. T. (1986).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history in DSM-III

-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3), 317-322.
- Rowa, K., Purdon, C., Summerfeldt, L. J., & Antony, M. M. (2005). Why are some obsessions more upsetting than oth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11), 1453-1465.
- Salkovskis, P. M. (1985). Obsessional-Compulsive Problems: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5), 571-583.
- Salkovskis, P., Shafran, R., Rachman, S., & Freeston, M. H. (1999). Multiple pathways to inflated responsibility beliefs in obsessional problems: possible origins and implications for therapy an research.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11), 1055-1072.
- Sanavio, E. (1988). Obsessions and Compulsions: the Padua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2), 169-177.
- Segal, Z. V., Williams, J. M. G., & Teasdale, J. D. (2002).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A new approach to preventing relapse*. New York, NJ: Guilford Press.
- Showers, C. (1992a). Compartmental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knowledge: Keeping bad apples out of the bun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36-1049.
- Showers, C. (1992b). Evaluatively integrative thinking about characteristics of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6), 719-729.
- Showers, C. J., & Kevlyn, S. B. (1999). Organization of knowledge about a relationship partner: Implications for liking and lo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6), 958-971.
- Showers, C. J., & Kling, K. C. (1996). Organization of self-knowledge: Implications for recovery from sad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578-590.
- Showers, C. J., Abramson, L. Y., & Hogan, M. E. (1998). The dynamic self: How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change with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478-493.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NJ: Guilford Press.
- Wells, A., & Matthews, G. (1994). *Attention and emotion: A clinical perspective*. Hove, UK: Lawrence Erlbaum.
- Wilhelm, S., & Steketee, G. S. (2006). *Cognitive therapy for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 guide for professionals*.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원고접수일: 2018년 5월 3일

논문심사일: 2018년 5월 18일

게재결정일: 2018년 8월 2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8. Vol. 23, No. 4, 859-881

The Self-structure of the College Stud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Focusing on Self-Ambivalence, Degree of Harmony among Self-aspects and Negative Compartmentalization

Jahyeong Yi

Wee Center,

Gyeonggi-do Goyang Office of Education

Seong-hoon Hwang

Department of Consult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e hypothesis that ego-dystonic obsession is associated with the splitting of self-structure. A survey using the Padua Inventory-Washington State University Revision (PI-WSUR) and the 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ROI) was administered to 431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survey, 27 students were screened out as the autogenous obsession (AO) group, 27 as the reactive obsession group (RO), and 29 as the control group. Self-Ambivalence Measure (SAM) was used to measure self-reports of divided self-structure. The AO and RO groups showed higher ambivalence levels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two obsession groups. The Self-Aspect Test (SAT) was conducted to measure self-structure. The AO and RO groups showed lower degrees of harmony among self-aspects than in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obsession groups. Compartmentalization (ϕ) and Differential Importance (DI), couple indicators of SAT reflecting structural splitting were analyzed. The AO and RO groups had high compartmentalization with low DI (namely, negative compartmentalization). Conversely, the control group showed low compartmentalization with high DI (namely, positive integration). The study'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also discussed,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Autogenous Obsession, Reactive Obsession, Self-ambivalence, Compartmentalization, Differential Importance